



석우 스님의
주주록 선행

크게 놓아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두 마리 용이 구슬을 다룰 때 누가 그것을 얻습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잃는 자도 잃음이 없고, 얻은 자도 사용할 일이 없다.”

問 二龍爭珠誰是得者 師云 失者無虧 得者無用

한 마리 용은 공(空: 빔)을 말하고, 또 한 마리 용은 물질[色: 물질]을 말한다. 구슬은 행복이나 어떤 목적을 비유한 것이다. 빔을 통하여 행복을 얻습니까,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 질문이 나왔었다. 그때 주주 스님은 “노승은 다만 지켜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공·물질 어느 것이 와도 좋다는 것을 내보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잃는 자도 잃음이 없고, 얻은 자도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 구슬[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구슬은 인간의 최상 목표이다.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것 등은 알고 보면 인간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서 성취했던 사람들은 한결 같이 말했다. 그 끝은 허망하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섰했다. “깨달음의 세계는 없다. 그러하니 깨달았다는 생각도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인(大人)의 상입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도대체 뭐란 말인가?”

問 如何是大人相 師云 是什麼
대인(大人)은 마음을 단 번에 크게 놓아버리고 일체를 초월한 사람이다. 수많은 적을 물리친 장수보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장수이다. 그를 진정한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 육조 대사, 입제 선사와 같은 붓다들은 대인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인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버렸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을 찾아 헤맨 끝에 평범함으로 되돌아왔다.

지금 주주 선사는 대인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대인? 뭐 말라빠진 자들이냐?”라고 비웃는 것이다. 그대들이 도를 안다면 이 주주 선사의 뜻도 알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부부 싸움하고, 자식과 실랑이하고, 약간의 월급이라도 올려 달라고 머리에 끈을 짚고 뒤통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대한 사람들이다. 세계 역사는 그들이 바꾸어 놓았다. 도안을 갖춘 자여! 저들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어떤 속인이 가사를 바치면서 물었다.
“이런 옷을 입으면 고인(古人)에 위배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스님은 불자(佛子)를 내던지면서 말했다.
“이것이 고(古)인가, 금(今)인가?”

有俗士獻袈裟問 披與廢衣服 莫辜負古人也 無師拋下拂子云 是古是今

가사(袈裟)는 스님들이 평상복 곁에 입는 황토색 복장을 말한다. 부처님은 길에서 천을 켜거나, 화장터에서 태워버리려고 했던 죽은 사람 옷을 가져다 기워 입도록 했다. 수행자에 맞는 겸허한 복장을 강조한 것이다. 조각을 붙여 기운 모양이 발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전의(福田衣)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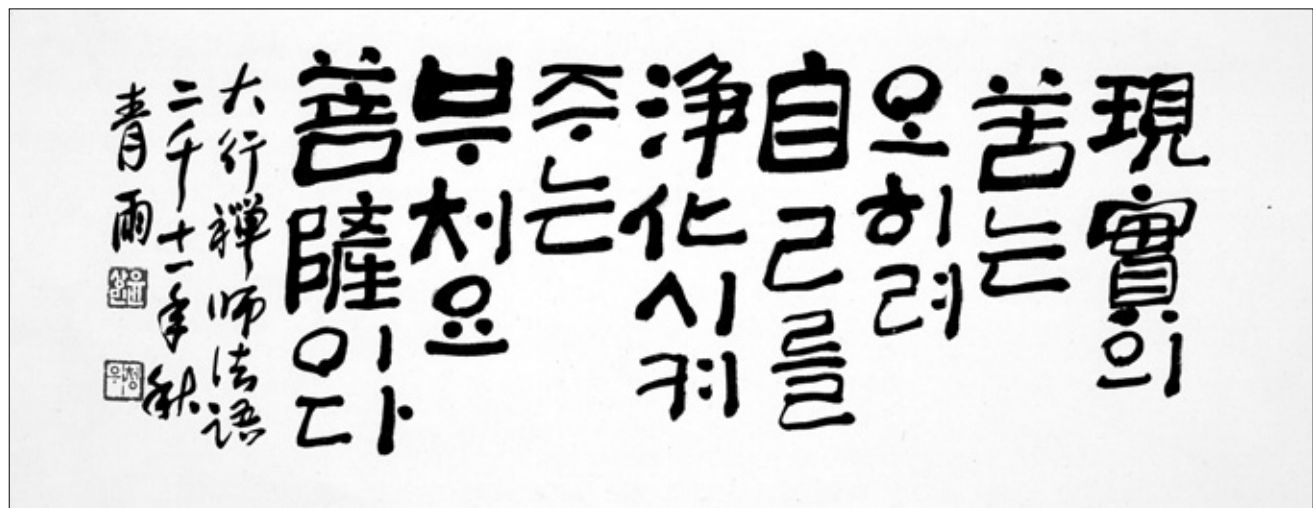
간혹 신도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만들어 올릴 때가 있다. 그때도 복전의를 상징해야하기 때문에 실체는 멸정한 천을 여러 개의 조각을 내어 깎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부처님의 뜻에 위배된다. 분소의(焚燒衣)가 아닌 멸정한 천을 썼으며, 천 값에 품값까지 훨씬 더 들어가므로 사치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속인이 가사를 올리면서 주주 선사에게 궁궐했던 것을 묻은 것이다.

그러자, 주주 선사는 주장자를 던지면서 한 마디로 잘라 말했다. “고금(古今)은 없는 거야. 도대체 누구에게 위배 된다는 말인가?” 하고.

독자들에게 물었다. 주주 선사가 주장자를 내던진 것이 선인가, 악인가? 하나 더 물었다. 주주 선사가 주장자를 던진 것과 신도가 가사를 지어 올린 것이 같은가, 다른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하나 잃은 것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눈을 다 잃은 장님이다. 알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대행선사 법어



이 대 부 부 주 정 자 오 현
현 살 이 이 시 시
10 정 살 처 화 기 히 실
이 천 선 사 법 어
주 다 요 는 커 를 러 는 의

現: 나타날 현
實: 열매 실, 이를 지
淨: 깨끗할 정
菩: 보살 보, 향초이름 배
薩: 보살 살

현실의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좌선삼매경

가장 정비되고 체계화된 경전

403년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으로 가장 정비되고 체계화된 삼매경전에 속한다. 이것은 <좌선삼매경>이 단일한 범문의 경전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 인도 및 중앙아시아 등의 여러 선정론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경전으로 역출했다. 특수한 성립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좌선삼매경>에는 초기선경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선정관법을 다섯 종류로 정리하여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좌선삼매경>은 어느 한 사람 내지 한 주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따라 각기 대처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그 내용들은 이후 선종의 성립기에 있어서 사조도신을 비롯하여 오조홍인 등 소위 동산법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좌선삼매경>은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좌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및 그 근본으로서 지계 및 오정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관법을 비롯하여 5종법문이 중심 주제로 서

좌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서술

부정관법 및 5종 법문이 중심 주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 범문 내용 설명

탐욕·진에·우치 등 다스리는 법 제시

술되어 있다. 그 5종법문은 수행자가 각각 대처해야 할 다섯 가지의 번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있다. 탐욕의 번뇌는 부정관(不淨觀)으로 다스리고, 진에(瞋恚)는 자심관(慈心觀)으로 다스리며, 우치(愚癡)는 인연관(因緣觀)으로 다스리고, 사각(思覺)은 염식관(念息觀)으로 다스리며, 등분(等分)은 염불관(念佛觀)으로 다스린다.

첫째, 탐욕의 마음[貪欲心]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닦으라고 한다. 이 부정관은 인도불교에서는 대승과 소승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법이다. 본 경전에서는 2종의 부정관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신체를 구성하는 36물이 부정하다고 하나하나씩 관하는 것이다. 둘째는 죽은 자의 육체가 부패되어 백골로 변해가는 9단계를 순차적으로 관찰하는 구상관(九想觀)이다. 음욕이 많은 사람은 7종의 애착이 있는데 이것을 멸하는 효과적인 관법으로는 특히 후자의 구상관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성내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자심관이다. 처음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친밀한 사람에게 자비롭게 하고, 다음으로 친밀과 증오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행하며, 최후에는 자신에게 증오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넷째,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연관을 행한다. 이것은 12인연을 관찰하는 것이지만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단계 가운데 처음은 무명

과 행 또는 생과 노사 등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다음은 행으로부터 유까지의 9단계를 관찰하며, 최후에는 12단계를 통틀어 관찰한다.

넷째, 분별심 곧 사려분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난나삼매(阿那般三昧)를 닦는다. 이것은 염식관(念息觀)이라 번역하는데 호흡을 들이키고 내뿜는 행위를 비롯하여 면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별 작용하는 번뇌를 다스린다. 처음에는 일심으로 입식과 출식을 1부터 10까지 헤아리고, 다음은 숨이 나가고 들어옴을 따라 그 숨과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멈추며, 최후에는 아나나삼매의 6종법문인 수(數: 수식관처럼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을 하나로 삼아 열 가지 헤아리는 방식이다)·상수(相隨: 호흡을 놓치지 않고 호흡이 들고 나는 모습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방식이다)·호흡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한다)·지(止: 數와 隨가 완성되면 호흡을 코끝에 머물러두고 들고 나는 숨의 관찰)·관(觀: 숨이 들고 남에 따라 오음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증장시키는 방식)·전관(轉觀: 觀의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간다는 뜻으로 轉이라고도 하는데, 곧 止와 觀을 성취하여 들숨과 날숨과 오음이 無常함을 터득하는 방법)·청정(淸淨: 청정은 완성된다는 뜻이다. 곧 몸·감각·마음·법·들숨·날숨·기타 수행의 완성)을 닦는다.

다섯째, 등분행(等分行: 단견·상견·영원불변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염불관을 권장한다. 그 방법으로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여실하게 관찰하여 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나아가서 시방제불의 상호를 일심으로 관찰하게 한다.

그리고 하권에서는 앞의 5종법문으로부터 나아가 색계의 선정에 해당하는 사선(四禪)과 무색계의 선정에 해당하는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닦고, 위파사나 수행의 근간이 되는 사념처 수행 및 이성과 보살승의 선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최후 보살도에 있어서의 선정의 실천 내용은 여기에서도 앞의 상권에서와 같은 5종법문을 수행하지만 중생구제와 제법의 공(空: 무집착의 실현)과 무상(無相: 평등심의 실현)을 설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좌선삼매경>의 내용은 각각 대처해야 할 대상에 따라 각각의 범문의 내용이 설계되어 있어 서로가 병립적인 관계의 구조로서 각각 다른 범문을 전제로 하는 중층적인 구조는 아니다. 또한 선경이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지 않고 실천의 수단임에 비하여 삼매경류는 거의 대승적인 성격에 가깝다. 곧 삼매경 전류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과 형식이 라기보다는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하는 선정에 있어서 내관(內觀)에 따라 교리가 전개되고 있다.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79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2011년 11월 중
- ◆ 개강일시: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 고품질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 DX-707 스텐드 마이크
- ◆ 법당 전용 스피커
- ◆ 일반 마이크 V-606LC
- ◆ 고성능 탁상마이크

◆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250,000원 (탁상미 포함)

◆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500,000원 (상자미 포함)

◇ 가격: 65,000원 (탁상미 포함)

◇ 가격: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